

‘입국 전 PCR 폐지’… 항공업계, 정상화 기대감에 ‘들썩’

입국 후 24시간 내 PCR 유지
가을 휴가철 여행객 증가 기대
방역완화 소식에 항공사 주가 ↑
“여행 정상화, 日 비자면제 관건”

항공 방역이 전격 완화되면서 항공업계에도 훈풍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3일 오전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해당 조치로 인한 여행객 증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일 항공업계는 “이번 완화책은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적용되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반응하고 있다. 백병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췄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여름 성수기는 넘겼지만 남은 가을 휴가철에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사전 PCR 검사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 /뉴스1

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는 출입국방역 규정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입국 의무 격리 면제가 시행됐을 때 여객 수요 증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증가율 기록한 것이 그 방증이기도 하다.

입국 시 격리기간 단축 및 폐지 등이 영향을 미친 지난달을 포함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달 31일 내용은 “7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7월 방한

관광객은 26만3986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8만3005명) 대비 218% 증가한 수치다. 출신 국가를 보면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5만39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1만8867명) ▲필리핀(1만8146명) ▲중국(1만7907명) 순으로 한국을 많이 방문했다.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구역) 체결한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7월에만 7832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영업이익을 좌우한다는 일본 관광객도 작년 동기 대비 1238%(1만1789명) 늘었다. 항공

업계는 관광비자 신청 제한이 완화되고 비자 발급 소요 기간도 줄어들면서 일본 관광객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오는 7일부터 일본이 ‘가이드 없는 패키지투어’를 허가함에 따라 자유 여행 패키지를 이용하는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관광청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7일까지 개정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증가할 항공 수요에 대비해 항공사들도 해외 신규 취항을 늘리는 등 정상화를 향한 날갯짓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방역 완화 소식에 가을 여행을

준비하는 문의도 많이 늘었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다음 달인 10월3일부터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 소식을 전했다. 해당 노선은 주 1회 운항하다가 10월29일부터는 주 2회로 증편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3월 중단한 중동과 동남아 주요 노선 운항도 재개한다. 10월1일부터 인천-두바이 노선을 주 3회, 태국 푸켓과 치앙마이는 각각 주 4회 운항할 계획이다.

출입국 방역 완화 소식에 LCC들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방역 완화 소식 이후 FSC-LCC 구별할 것 없이 최소 2%대에서 최대 6%대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이제 항공업계가 직면한 숙제는 개인의 개별적인 일본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본 개인 비자 면제’ 허가 여부다. LCC 관계자는 “일본 여행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을 때 보다는 늘었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하기엔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8월 한 달간 재개했던 일본-대만-미국 대상 무비자 입국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며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비자를 받기까지 2~3주가 걸리는 게 현실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포스코홀딩스, 印 그린코와 수소생산 ‘맞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호주서 승인

그린수소 생산모델 구축 협력
국내·유럽 등에 공급 계획

포스코홀딩스가 인도 2위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그린코와 함께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고 있는 수소 관련 전시회 ‘H2 MEE T 2022’에서 그린코와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두 회사는 인도 현지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양수 발전을 기반으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코는 싱가포르투자청(GIC),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투자한 인도 내 재생에너지 2위 업체로,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7.2GW(기가와트)에 달한다. 그린코는 양수 발전을 통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최대 활용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그린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에 주력하고 있다.

조주의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추진



그린코 가우탐 레디 쿤담 신재생에너지부문총괄(왼쪽 세번째부터), 포스코홀딩스 조주의 수소 사업추진단장이 1일 수소사업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단장은 “인도는 풍부한 태양광, 풍력 자원과 우수한 전력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에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적극적인 수소 경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전략적인 생산 거점 중 하나”라면서 “양자 협력을 통해 인도에서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국내와 유럽지역에서 필요한 그린수소와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린코 가우탐 레디 쿤담 신재생에너지부문총괄은 “그린코는 재생에너지와 양수 발전을 연계한 사업모델로 수소 생산에 필요한 그린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양자간 협력을 통해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적정 사업부지를 연내 발굴한 후 그린수소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승인절차 5곳 남아… 통합 ‘급물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작업이 한 발짝씩 진전되고 있다.

양사의 인수·합병의 선결조건인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디게 진행됐지만 호주 당국이 합병을 승인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9월 1일 오전 임의 신고 국가인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조건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호주 경쟁 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드니 노선에 직항편을 운항하는 두 개의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한 사안이지만, 환타스항공이라는 대형항공사와 젯스타라는 저비용항공사가 모두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사간 기업결합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건없이 승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호주의 경우 필수신고국가인 미국이나 EU와 같이 양사 결합 전과 동일

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을 필두로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들의 승인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또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필수신고국가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국가인 영국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이노텍 홈페이지, ‘고객경험 혁신’ 담아

사용자 중심 편의성 제고 등 개편

LG이노텍이 온라인에서도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

LG이노텍은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으로, 방문자 편의성을 높여 신뢰감을 높이고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방문 대상을 기업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잠재 채용인재, 투자자와 협력사 등으로 대폭 확대한

데 있다. B2B 기업임에도 고객 접점을 대폭 확장한다는 의지다.

특히 LG이노텍은 ‘버추얼 쇼룸’을 통해 온라인 도슨트 투어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S일렉트릭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LS일렉트릭도 추석 명절 맞이 상생에 동참한다.

LS일렉트릭은 930억원 규모 납품대금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지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명절 연휴 협력사를 위한 조치다.

앞서 LS일렉트릭은 협력사를 ‘제2의 사업장’으로 보고 명절 조기 대금 지급뿐 아니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상생 노력을 이어왔다. /김재용 기자